
해변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56)연구: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김진동

강원도립대학 관광과 조교수

E-mail : jdkim@gw.ac.kr

강원동해안은 자연적인 아름다움과 수많은 경승지, 다양한 관광매력물을 보유한 국내 최고의 관광지로서 알려져 왔다. 그중에서도 동해안의 해변은 여름철 가장 즐겨찾는 국민관광지이자 가장 핵심적인 해양관광지로서 오랫동안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지역에 비해 뛰어난 자연경관미와 청정성 등의 해양관광환경을 자랑하는 곳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강원 동해안 해변은 환경훼손 및 쓰레기 문제, 입장료나 주차료 등 해변운영과 관련된 요금징수 문제, 주요 편의시설의 부족, 알뜰피서 행위나 소비수준의 저하와 같은 소비행태의 문제, 혼잡도 증가로 인한 만족도 저하, 체험프로그램의 미흡, 호객행위나 바가지 요금, 서비스 품질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여름철 저온현상과 같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서객 감소와 지역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강원 동해안의 해변운영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해변운영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색인어> 해변, 강원 동해안, 해변운영

56) 본 논문은 2007년도 강원해양수산포럼 세미나 발표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임

I. 서 론

해변¹⁾은 다양한 해양관광활동이 유발되는 주요 공간이자 대중적인 관광지로서 오래전부터 자리매김 되어 왔다. 특히 동해안의 해변은 국민관광지로서의 확고한 이미지와 인지도를 갖고 있는 주요 해변을 중심으로 여름철 피서객들이 가장 즐겨 찾는 해양관광지로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서·남해안에 비해 우수하다는 점을 주요 경쟁요인으로 부각시켜왔다. 동해안을 찾은 관광객은 최근 몇 년간을 보면 2천만 명을 넘어 2008년에는 3천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강원도 환동해출장소, 2009).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강원 동해안 해변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서관광객 감소, 지역 상경기 위축, 숙박시설 등 관련 인프라미흡, 자연환경훼손 및 쓰레기 문제, 소비행태의 문제, 호객행위, 바가지 요금징수 등 서비스 품질의 저하, 체험프로그램 미흡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변 및 해양관광에 대한 이론적 부분을 살펴보고, 기존 문헌연구와 해변운영관련 해당기관의 내부자료 및 연구자가 강원 동해안 해변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지역 언론에서 제기해왔던 쟁점을 중심으로 동해안 해변이 안고 있는 관련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짚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향후 보다 수준 높고 쾌적한 해양관광지로서 거듭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해변 및 해양관광에 대한 논의

해변(海邊)은 ‘바닷가, 바다근처, 바다부근, 바다일대’ 등을 의미하는데, 2009년부터 강원 동해안에서는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해수욕장(海水浴場)’이란 용어 대신 ‘해변’이란 용어로 변경했다. 지난 몇 년간 이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어왔는데, ‘해수욕장’이란 용어의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과 타당성을 살펴보면, 먼저 현대인의 관광패턴에 비추어 해수욕장이라는 용어는 부적합하다는 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직접체험 및 활동성의 증가와 테마별 관광활동의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해수욕장이라는 용어는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제한된 관광활동에 한정된 느낌을 주어 관광객들의 계절적 편중성 등 방문시기나 방문목적, 실제 관광휴양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해수욕장이란 용어는 여름 한 철에만 이용하는 장소로

1) 강원도 동해안은 2009년부터 ‘해수욕장’이 ‘해변’으로 용어가 바뀌어서 본 논문에서는 해변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용어변경으로 사계절 관광지로의 이미지 변신을 위한 목적도 있다. 또한 동해안 지역 해수욕장의 차별화 및 이미지 제고, 홍보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구시대적인 명칭에 대한 발상전환과 재검토가 요구되어 왔다. 앞으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해변과 같이 ○○부분이 지역명 일색으로 되어 있는 해변명칭에 대한 변경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명 대신 그 지역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 해변의 특색을 부각시킬 수 있는 개성있는 명칭으로 변경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지자체차원의 혁신적인 조치로 인해 ‘해변’으로 변경되면서 향후 이러한 용어변경에 걸맞은 해변운영 및 사계절 관광지로의 도약을 위한 세부전략수립 등 실천적인 움직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해변은 여름철 단기간에 피서인파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주로 이 시기에 해양관광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한편 해양관광은 현대인의 관광패턴과 기호가 다양화되면서 각광받는 관광유형으로서 점차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해양관광이란 ‘해안선에 인접한 육지와 바다의 공간에서 해양레크리에이션 행위를 하는 활동’이며(권혁재, 1974), ‘국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과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 및 해양 레저·스포츠 모두를 해양관광’(해양수산부, 2001)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제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바다, 연안, 해상, 강하구, 집수 지역 등에서 이루어지는 관광객에 의한 광범위한 형태의 활동’이며(이상춘 외, 2004), 해안선에 인접한 바다나 육지 등의 해안지대에서 부존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총체적인 관광활동으로 정의된다(신동주·신혜숙, 2005).

해양관광의 유형은 학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해양관광은 여러 형태로 정의되고 있는데 해양관광의 유형에 대해 Marks(1999)는 활동형, 자연형, 사회·문화형, 이벤트형 해양관광으로 구분했으며, 종합적으로 보면 해양의존형, 해양연관형,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기타 해양관광활동으로 구분하기도 한다(정석중·이미혜, 2004). 이를 세분하면, <표 1> 과 같이 해양의존형의 경우 ‘스포츠형, 휴식·휴양형, 유람형, 경관관람형’으로 해양연관형과 기타 해양관광활동도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된다.

<표 2> 를 살펴보면 향후 해양관광 참여인구·횟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 국민의 해양관광 참여인구는 약 30% 정도이며(이상춘 외, 2004), 해양활동 가운데 50% 이상이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해양수산부, 1999), 해수욕장(해변)은 국내의 가장 핵심적인 해양관광의 무대임을 알 수 있다. 계절별로는 여름철에 바닷가여행이 집중되어 계절적 편중이 심한편이다.

〈표 1〉 해양관광의 유형

Marks (1999)	활동형	서핑, 윈드서핑, 낚시, 스쿠버 다이빙, 수상스키, 항해, 해수욕
	자연형	해양자원 감상과 관람, 생태체험(갯벌체험, 조개잡이)
	사회 문화형	전통축제, 지역축제(풍어제, 머드축제, 대하축제 등), 어촌민속전시관, 어촌역사박물관 등
	이벤트형	윈드서핑, 요트, 바다낚시 등의 대회
정석중 · 이미혜 (2004)	해양 의존형	스포츠형: 보팅(서핑, 윈드서핑 등), 요트와 보트(세일링요트, 카누, 제트스키, 모터보트 등), 다이빙(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등), 고무보트, 페리세일링, 수상스키 등
		휴식·휴양형: 해수욕(바다수영, 물놀이, 일광욕 등), 조간대 수렵(조개잡이 등) 해변동식물 채취, 바다낚시(해안낚시, 암벽낚시 등)
	해양 연관형	유람형: 해상유람(관광유람선, 여객선, 크루즈 등) 경관관람형: 해중경관감상(관광잠수정, 해중전망대 등)
		해변스포츠·레크리에이션활동, 해변축제·이벤트 참가 등 해안경관조망, 낙조감상 등
기타	해양문화탐방: 어촌 민속전시관, 어촌역사유적지답사 등 갯벌생태체험, 철새관찰 연수·회의·연구·교육 등의 방문, 어항·어장 관람, 수산물시장 쇼핑, 각종 음식점 방문 등	

자료: Marks(1999), 정석중·이미혜(2004)를 토대로 제작됨

〈표 2〉 해양관광 참여인구 전망

구분	2000	2003	2010	2020
인구(천명)	47,280	48,430	50,620	52,360
1인당 연평균 관광참여 횟수	6.9	7.1	7.3	7.5
총 관광 참여횟수(천명·회)	326,232	343,853	369,526	392,700
해양관광 총 참여횟수 (천명·회)(백분율, %)	84,404 (25.9)	92,060 (26.8)	116,431 (31.4)	160,149 (40.8)
해수욕	63,643	68,741	83,080	
바다낚시	5,849	6,578	8,658	
해양스포츠	1,574	2,394	6,368	
해양연관형(어촌관광 등)	13,338	14,347	18,325	

자료: 해양수산부(2006), 해양수산부(2001).

한편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이 경험한 관광형태는 해수욕이 1위가 아닌 '경관감상/해변휴식'이 1위로 나타났고, '수산물 맛보기'가 2위, '해수욕'은 3위에 올랐으며, 희망하는 관광형태로는 '축제, 문화탐방'이 1위였고 '해수욕'은 2위로 나타나 해양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더 선호하였고, 수산물 맛보기나 경관감상/해변휴식 같은 전통적이고 정적인 형태의 프로그램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홍장원, 2002). 과거 바다는 수영이나 낚시 등을 하는 곳으로 여름철 관광지로 인식되

있으나 근래에 와서는 각 지자체마다 해양관광자원을 배경으로 하는 지역축제 및 이벤트 등 관련 행사 개최, 해돋이 관광,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위락시설 개발 등을 통해 세계적 관광지로의 포지셔닝을 추구하고 있다(홍장원, 2002).

Ⅲ. 강원 동해안 해변 운영 현황 및 문제점

강원도 동해안은 약 240 Km의 해안선에 걸쳐 있으며, 국내 최고의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연중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해양관광의 중심지역으로서 강릉을 중심으로 동해, 삼척, 양양, 속초, 고성 등 6개 시·군의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된다. 또한 이 지역은 긴 해안선을 따라 100개 정도의 해변이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해변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마다 여름 성수기에는 수천만 명의 피서객들이 찾는다.

〈표 3〉 강원 동해안 해변 운영 현황

시·군	시범	일반	마을
강릉(22)	경포, 주문진, 연곡, 정동진, 옥계	소돌, 사천진, 사근진, 강문, 송정, 안목	향호, 영진, 하평, 사천, 순긋, 남항진, 염전, 안인, 등명, 금진, 도직
동해(10) 속초(3)	망상, 추암 속초	노봉, 어달, 대진 등대	하평, 가세, 고불개, 한섬, 감추사 외옹지
삼척(18)	삼척, 맹방	증산, 작은 후진, 한재밀, 상명방, 하명방, 덕산, 궁촌, 용화, 장호, 호산, 임원	오분, 부남, 원평, 문암, 고포
고성(26)	송지호, 송지호오토캠핑, 봉수대, 화진포	삼포, 백도	명파, 마차진, 대진1, 대진5, 초도, 거진1, 거진11, 반암, 가진, 공현진1, 공현진2, 삼포2, 자작도, 문암2, 교암, 아야진, 청간, 천진, 봉포, 켄싱턴리조트
양양(21)	낙산	설악, 하조대, 오산, 남애3리, 지경	물치, 정암, 동호, 기사문, 잔교, 북분, 동산, 동산포, 죽도, 인구, 광진, 남애, 갯마을, 남애1리, 원포
100			

자료: 강원도 환동해출장소(2009). 2004~2005년은 99개 해변 운영. 2006~2009년은 100개 해변운영

〈표 4〉를 보면 2004년~2008년까지 2천 3백만에서 3천만 명 정도의 피서객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적으로는 경포해변이 있는 강릉이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피서객 방문비율을 보이고 있어 다소 편중됨을 나타낸다. 고성지역의 경우는

가장 많은 해변을 보유하고 있으나 피서객수에서는 6개 시·군 가운데 4번째 정도이며, 반면 불과 2~3개 정도의 해변을 보유하고 있는 속초의 경우는 훨씬 많은 해변을 보유한 삼척과 2006년 이후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표 4〉 연도별 피서객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시군별	피서객
		계
2004	계 (99)	23,365,707
	강릉(21)	9,584,114
	동해(10)	3,661,061
	속초(2)	682,311
	삼척(20)	1,473,916
	고성(25)	3,266,413
	양양(21)	4,697,892
2005	계 (99)	28,409,506
	강릉(21)	10,968,773
	동해(10)	6,906,142
	속초(3)	855,219
	삼척(19)	1,532,349
	고성(25)	3,036,175
	양양(21)	5,110,848
2006	계 (100)	23,414,995
	강릉(22)	9,176,702
	동해(10)	5,934,510
	속초(3)	1,136,757
	삼척(19)	1,516,874
	고성(25)	2,418,819
	양양(21)	3,231,333
2007	계 (100)	28,566,474
	강릉(22)	11,087,238
	동해(10)	5,672,227
	속초(3)	2,224,211
	삼척(19)	2,500,780
	고성(25)	2,809,195
	양양(21)	4,272,823
2008	계 (100)	30,329,516
	강릉(22)	11,630,155
	동해(10)	6,171,737
	속초(3)	2,482,995
	삼척(19)	2,273,803
	고성(25)	3,002,346
	양양(21)	4,768,480

자료: 강원도 환동해출장소(2009).

2009년의 경우 동해안 6개시·군의 100개의 해변에는 약 2천 663만여 명의 피서

객이 찾아 전년에 비해 12%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상 저온현상과 긴 장마, 경제불황 등으로 인해 결과로 분석되고 있으며, 해변별로는 강릉 경포가 812만 명으로 가장 많고, 동해 망상 543만2천명, 양양 낙산 408만7천명, 속초 232만2천명, 삼척 101만8천명 등의 순이었다.(<http://www.yonhapnews.co.kr/>-연합뉴스 2009. 8. 23).

해양활동 중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해변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강원해양수산포럼, 2007)로 나타나 가장 선호하는 해양관광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바닷가 여행의 행선지 조사결과 강원도 동해안이 전체의 32%를 차지하여 경남 17%, 부산 14%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해양수산부, 2000). 이를 바탕으로 동해안의 관광객 방문비율은 약 50% 정도로 추정(강원해양수산포럼, 2007)되면서 전국 최고의 해양관광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여름성수기에 도로 여건 등 상당한 과밀현상으로 교통 및 장시간의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장애요인을 극복하고서라도 강원도 동해안 지역을 찾는 배경으로 타 지역에 비해 뛰어난 자연경관과 함께 각종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과 다양하고 신선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다는 점,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관광지, 넓은 백사장 등이 그 원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해변 피서객 대상 조사결과(강원도 환동해출장소, 2009)에서도 '강원 동해안 해변을 찾은 동기'로 1위가 '깨끗한 자연환경(49.7%)'이었고 다음이 '편리한 교통(18.2%)', '다양한 볼거리(16.3%)'의 순이었다. 따라서 '청정한 자연환경'이 서·남해와는 가장 차별화될 수 있는 경쟁요소임을 알 수 있다.

최근 강원도 동해안 해변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해안 해변의 철책선 제거, 일부 군사시설 이전, 일부 해변의 백사장내 불법건축물 철거, 공원 및 산책로 조성 등의 시설투자로 인해 해변의 이미지 개선과 경관미를 높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보다 수준 높은 해양관광활동을 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이제는 동해안 해변이 우수한 자연환경 뿐 아니라 현대 관광객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보다 고품질의 해양관광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과 현실적인 개발계획 및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동해안 해양관광의 부흥을 위한 단초를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먼저 기존에 동해안 해변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해양관광지의 오염과 주변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이다. 지금까지 동해안 해변의 가장 부각되는 이미지이자 서·남해안과 차별화된 점은 청정의 이미지이며, 이러한 측면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동해안의 해변에서도 수질과 백사장의 오염이 지적되고 있으며, 여름 성수기 관광객들에 의한 쓰레기 배출 및 주변 자연환경훼손 등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이다. 또한 일부 해변의 경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해안사구의 훼손과 해안침식이 진행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이처럼 해변오염으로 인한 정화 및 쓰레기 처리를 위해 해마다 여름 성수기에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해안이 침식되고 있는 곳에도 임시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피서객들의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방치, 각종 환경훼손 행위로 인해 현재 강원 동해안 해변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둘째, 동해안 해변의 특정기간 집중에 대한 분석과 조절 메커니즘이 부족하다. 동해안 해변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해양관광의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해수욕과 일부 활동형 해양관광이 주로 여름철에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절적 편중성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관광활동의 질적인 측면의 문제 뿐 아니라 앞서 제시한 것처럼 환경훼손의 문제 및 바가지요금, 비수기 때의 경영수지 악화와 시설관리 미흡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물론 해양관광의 특성상 여름철 이외의 계절에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은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절적 편중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하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각 지자체에서는 여름철에 집중되는 관광객들을 더 많이 지역의 해변으로 불러 모으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더 많은 관광객 유치에 지역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이러한 노력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오로지 관광객 수의 양적인 증가가 가져다주는 편익에만 치중하여 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종종 여름 성수기 때만 되면 신문, TV 등 대중매체에서는 어느 해수욕장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것이 뉴스거리가 된다. 그러나 현재의 동해안 해변은 관광객 수의 증가 등 양적인 측면에 들떠있기 보다는 먼저 엄청난 관광객의 유입으로 인한 파급효과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중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해안 해변은 특정시기 과밀화와 계절적 편중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다양한 해양관광을 위한 여건이 미흡하며, 관광객을 위한 핵심편의시설이 부족하다.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의 해양관광활동은 여름철 해수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활동형, 자연형, 사회·문화형, 이벤트형 등 다양한 해양관광활동 등이 존재하지만 실제 해수욕 이외 다른 형태의 해양관광의 비중은 낮다고 볼 수 있어 현재 동해안 해변에서는 다양한 해양관광을 위한 내·외적 환경조성 및 여건마련이 미흡한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즉, 지금까지의 단순한 해양관광활동형태를 보다 다양

화, 특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해안이나 남해안의 경우 갯벌체험, 조개잡이, 윈드서핑, 요트, 해양 스포츠 이벤트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해양관광활동이 비교적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다. 물론 최근 들어 동해안 각 시·군에서도 요트마리나 시설 조성, 근해 크루즈 관광 등의 다양한 해양관광활동을 위한 여건조성에 나서고 있으나 동해안 해변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독특하고 다양한 해양관광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의 관련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수십 년 동안의 개발규제로 인해 동해안의 주요 해변관광지는 숙박시설 등 각종 개발이 부진하고 투자가 위축되어 왔다. 이에 따라 여름 피서철은 물론이고 사계절 휴양관광지로서의 여건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예로 동해안 최대의 해변인 경포의 경우 해마다 찾는 관광객 수와 대외적인 인지도에 비해 최고의 해양관광지로서 실제 여건은 열악하기만 하다. 물론 최근에 불법건축물 철거, 산책로 및 공원조성, 상가간판정비와 같은 주변환경정비를 통해 변화가 있었고 공원 내 숙박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관광객들이 편히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콘도미니엄, 리조트, 특급호텔 등의 숙박 및 휴양과 관련한 핵심적인 시설확충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넷째, 피서객들의 소비수준이 낮으며, 관광객들로부터 소비를 유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 역시 몇 년 전 부터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으로서 관광객이 증가했던 해에도 피서철 체감경기가 그리 좋지 않았고 관광소득 창출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피서철 동안 영동권 은행에서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화폐 발행액은 증가한 반면 환수액과 환수초과액은 피서객의 감소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2009년의 경우 2008년에 비해 환수초과액이 15%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강원도민일보, 2009. 8.26). 이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관광객 수의 증감에 따라 지역경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해마다 엄청난 인파가 방문하지만 지역의 상경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결국 피서객들이 소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체감경기에 차이가 있겠지만 소비수준이 떨어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그 원인으로는 피서지 체험관광활동 등 소비거리의 부재, 알뜰 피서문화 등 관광객들의 소비의식, 대형마트 위주의 소비행태, 열악한 주변 소비환경, 피서객들의 직업·연령·소득수준 등 인구통계학적인 측면에서 소득이 없거나 낮은 학생 등의 비중이 높다는 점, 저온현상과 같은 기상조건도 원인으로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피서객들의 소비극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최근 몇 년간 이상기후로 인한 피서객유입과 지역상경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이상 저온현상과 긴 장마로 인한 일조량 저하 등 기상조건이 좋지 않아 여름 해변으로의 관광객 유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해수욕을 비롯한 다양한 해양관광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피서객들의 해양관광활동을 위축시킴과 동시에 소비활동 역시 여름 성수기의 소비특성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기상이변이 몇 년간 지속되어 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기상조건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기 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양관광 프로그램개발과 관광객 비중이 높은 주요 해변을 중심으로 종합해양관광시설과 같은 인프라 구축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입장료, 주차료 등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광 관련 재정수입확보의 문제이다. 동해안 해변에서는 입장료는 물론 주차료 까지도 무료로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조치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특히, 강원도의 경우 열악한 세수 등 지방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관광산업이 도의 기간산업이자 전략산업인 점을 감안한다면 주요 관광자원 중 하나인 해변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장료와 주차료, 각종 시설이용료, 기타 수입 등 해변운영을 통한 재정수입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관광자원의 관리와 운영 나아가서는 더욱 수준 높은 관광지 개발과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입장료 등의 무료화는 근래에 제기된 강원도 차원의 관광세 징수의 추진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지에서의 입장료나 주차료 등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타당성이 없는 징수는 분명 지양되어야 하겠지만, 강원도 동해안 지역처럼 관광산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지자체에서 여름철 절정의 관광성수기에 관련 요금을 무료화 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특히 이러한 무료화가 여러 측면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으며, 해변 운영시 예산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환경문제, 관광활동의 질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강원도는 고부가 관광산업으로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해양 크루즈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등의 관련정책을 제시했고, 그동안 요트 마리나 시설개발, 주요항구의 관광미향으로의 개발, 지역별 해양관광자원의 특화개발 등 꾸준히 동해안 해양관광자원의 개발의욕을 보여 왔으며, 일부는 어느 정도 성과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강원도 동해안 해양관광의 핵심인 해변의 현실과 문제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분석과 이해가 매우 중요하며, 강원도 해안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확고히 인식하는 가운데 내실 있고 현실적인 개발 패러다임의 모색과 해양관광자원의 관리·운영전략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V. 동해안 해변운영의 개선방안

지금까지 강원도 동해안 해변의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앞서 언급되었던 문제점들을 위주로 하여 그 개선방안 및 향후 지향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해양관광지의 환경적 가치향상을 위한 근본적 방안강구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경우 맑고 깨끗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큰 경쟁력이며, 여름철 관광객에게는 하나의 차별화된 이미지로 포지셔닝 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을 동해안으로 불러 모으고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의 관광행태를 보면 수많은 관광객들로 넘쳐나는 해변과 같은 해양관광지에서는 무질서하고 흐트러진 관광행동들이 난무하고 있어 관광지 환경훼손과 나아가 청결한 동해안 해양관광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양관광자원 등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 대한 관광지 환경의식의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용되는 해양관광지에서의 환경훼손은 관광객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관광객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해양관광환경과 관련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이 해양관광지에서의 환경훼손에 대한 경각심과 해양관광자원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갈으로써 동해안 관광지에 대한 환경 친화적 이미지향상과 관광객 및 주민의 관광지 환경의식제고를 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종합해양관광시설이 건립된다면 이를 활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해양관광지 주변의 현장에서 해설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양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이에 대한 제재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는 해변에서의 쓰레기 무단 투기나 방치 등에 대해 단순한 계도활동 이외에는 체계적인 단속이나 제재적 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여름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해변에서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우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즉 해양관광환경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회자본의 개입이 요구된다. 또한 해변 등의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써 입도세징수도 거론되고 있는데, 지자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쓰레기처

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변을 찾은 피서객들에게 입장료 대신 쓰레기 봉투구매 및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등의 행위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해안사구 훼손과 해안침식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식이 필요하다. 근래에 와서 몇몇 해변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환경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개발패러다임부터 바로잡아야 하며,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개발철학이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되며, 해양관광지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환경적 가치인식 제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하드웨어적인 관광객 편의시설 및 관련인프라 확충 등에 있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광자원개발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관광지 자체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청정관광지로서 동해안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이처럼 청정한 해양관광환경의 보존과 유지를 통해 가능하다.

2. 특정시기 해변 집중에 대한 고려

여름 성수기 동안 동해안의 해변은 적정의 피서객 수용력을 훨씬 초과하여 관광활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혼잡도가 매우 높고 관광객들의 만족도 및 관광활동의 질이 저하될 소지가 높다. 특히 일부 해변에서는 과도한 수준에 있어 관광객들의 해변 이용시 불편함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해변의 체계적이고 합리적 운영전략 수립을 위한 방안장구이다. 최근 동해안 해변은 해마다 2천~3천만의 관광객이 찾아오지만 이들이 지역사회에 가져다주는 편익에 대해서는 보다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관광객의 양적증가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 엄청난 쓰레기 양산에 따른 환경오염과 처리비용 발생으로 인한 지역의 부담가중, 교통 혼잡, 사회·문화적 악영향 등의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관광객 수의 증가에 대비한 관광소비지출 수준 등에 대한 문제 역시 심도 있는 논의와 재해석이 필요하다. 즉, 관광객 수의 양적인 증가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해양관광지 관리와 마케팅 전략 수립, 관련 제도개선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한편, 여름철 집중되는 해양관광객들의 수용 및 이용효율성 제고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관련 인프라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이 요구되므로 우선 해양관광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원천의 다양화 및 개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동해안의 주요 해변을 중심으로 현재의 다양한 해변정보(관광객 수, 주차가능대수 등)

를 알려주는 전자안내판 등을 관광지 진입로 입구나 관광객 유입로 주변의 가시성이 높은 위치에 설치하는 방안²⁾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성수기 교통난 및 주차난,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이용 관광객들에 대해 해변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서부터 차량통제를 실시하고 적절한 위치에 주차시설을 마련하여 해변까지는 셔틀버스 운행을 통해 진입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또한 관광객들이 최대한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관광(정보)안내소 설치 및 활용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여름철 해변운영과 관련한 안내사무실을 제외하고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아직 관광안내소와 같은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으며, 일부 해변에는 관광안내소가 있지만 해양관광과 관련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 제공 수준이 아직 미흡하여 해변 이용시에 불편함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숙박, 주차, 해변에 대한 정보, 음식, 체험거리, 주변관광지 등에 대한 관련 모든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러한 안내시설에서 제공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관광객이 방문했을 때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관광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특히 해변의 관광안내소는 제공되는 정보수준의 중요성에 못지않게 그 위치와 운영시기 및 규모, 전문인력의 배치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운영·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해양관광관련 정보제공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각 지역 상호간에 정보공유 등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계절적 편중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여름철 이외에도 다양한 해양관광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문화 및 레저스포츠 축제와 이벤트 개최, 지역의 다른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의 MT 및 연수 장소로서의 활용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 뿐 아니라 인프라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종종 제기되는 사안이지만 사계절 해양관광지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여름철 이외의 계절에도 숙박관광객의 비율을 높여야 하며, 해양관광지 주변 숙박시설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비교적 숙박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곳도 있으나 가족단위 등의 관광객들을 위한 리조트나 콘도미니엄, 고급 및 중저가 호텔 등의 숙박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동해안 각 지자체에서는 관광객 수의 양적 증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 못지않게 질적 관광의 시대의 도래에 따른 해변을 방문한 관광객들을 어떻게 관리하여, 만족도를 제고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2) 이러한 시설은 비수기 때에는 지자체 및 다양한 정보제공시설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관광객들로부터의 소비 창출 전략

앞서 언급되었듯이 최근 들어 2천에서 3천만 명에 육박하는 피서 관광객들이 동해안을 찾고 있지만 이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가 많다. 정확한 피서지에서의 소비 통계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일반적으로 동해안을 찾는 피서객들의 지출은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 등의 체재비, 젊은 이들의 경우 유흥이나 잡비, 보트 등 각종 해양놀이기구와 파라솔, 텐트, 튜브 대여료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비의 편협성, 소비환경의 열악함, 알뜰소비로 불리는 소비주체의 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관광객들로부터 소비를 유발하지 못하고 있고 소비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해마다 제기되고 있는 해양관광지에서의 소비수준 및 지역에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관광지 상경기는 관광객의 양적인 증가에 비례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어쨌든 이러한 소비형태 및 전반적 소비수준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보다 적극적인 소비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절약형 소비자의 경우 피서지는 물가가 비싸다는 인식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 오게 하는 것인데, 이는 해수욕장 등 피서지 인근 상가의 경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흔히 '피서지 바가지요금'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오래전부터의 일이다. 최근 들어 이 문제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자정활동을 전개하여 이미지 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호객행위'나 '바가지요금'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당국에서는 여름 피서철 단속 및 지도와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연중 지속적인 계도와 계몽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지도와 단속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피서지 물가보장제와 가격표시제 등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피서지 물가 정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모범업소 평가 및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행정 및 제도적 지원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피서지 주변 상가의 소비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전 준비형의 관광객들과 함께 관광지에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소비환경의 개선이 중요하다. 소비환경에는 쇼핑시설 등 물리적인 환경과 인적 서비스 환경 모두가 포함된다. 바닷가 등 관광지 주변에는 언제나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그곳에서 종사하는 인적 자원들의 서비스 수준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인지도가 높은 몇몇 동해안 해변의 경우도 그 명성과 규모에 걸맞지 않은

소비환경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외지 관광객들은 다소 떨어진 지역의 대형 마트에서 쇼핑을 하거나 미리 준비해오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해변내의 상가지역에서는 아직도 '호객행위' 등이 빈번하여 관광지 이미지를 저하시키는데 일조한다. 결국 물리적인 환경 뿐 아니라 피서지의 상인들도 스스로 성숙한 상행위를 위한 의식 개혁과 자정활동을 통해 해변의 소비환경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셋째, 피서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연령, 성별, 직업, 소득 수준, 거주지 등에 따라 소비수준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에서 제시되어 왔다. 동해안을 찾는 피서객들 중 10-20대의 비중이 높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즉, 소득이 없는 계층이거나 낮은 계층이 피서지를 찾음으로써 상경기에 큰 기여를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관계당국과 관련기관에서는 피서객들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소비유도를 위한 정책마련과 대책이 요구된다.

이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광마케팅 전략의 실천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 지자체나 언론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관광객 수 등의 통계수치는 정확성이 결여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이러한 특성파악은 관광지 관리와 개발·계획수립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해변 등 해양관광분야의 관광통계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넷째, 몇 년 전부터 여름 피서철에 장마와 폭우, 저온현상 등 기상조건이 좋지 않아 피서객 유입과 지역관광산업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한반도의 아열대화 등 기후변화 예측이 제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상조건에 대한 대책마련은 중요하다. 최근 날씨 마케팅이란 용어가 종종 등장하고 있다. 여전히 여름철이 지역경제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여름철 기상조건에 매우 민감하며, 이러한 기상조건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여름철 날씨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해양관광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되며, 해양관광관련 시설과 프로그램 개발은 이러한 차원에서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기상조건에 관계없이 해양관광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종합해양관광시설을 건립하여 실내스포츠(수영, 서핑, 파도타기, 다이빙 등), 레저·레크리에이션 활동, 해양관련 전시관 및 박물관,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시설 등 다양한 실내 해양관광활동 및 휴양레저시설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한편 우천시에 실외에서 즐길 수 있는 해변공연이나 축제·이벤트, 바다체험과 같은 프로그램 개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다양한 체험거리의 개발로 소비를 창출해야 한다. 해변을 찾은 관광객들

의 소비창출 및 해양관광활동의 다양화를 위해 하드웨어의 개발 못지않게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체험환경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해변은 소비거리가 제한적이며, 제대로 된 체험프로그램이 매우 빈약하다. 특히 해변이 주요 소비계층으로부터 외면 받는 것은 현대관광객들의 레저라이프스타일과 여가문화, 소비패턴이 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상품개발, 마케팅, 관광객 유치전략이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게 없는 것도 한몫 하고 있다. 피서객들의 대부분은 해수욕(海水浴) 즉, 단순히 '바닷물에서 헤엄을 치거나 즐기면서 노는 활동'에 치중하고 있어 해양레저 및 스포츠 활동의 개발을 통해 관광객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해양관광형태를 다양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양한 참여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모터보트뿐 아니라 윈드서핑, 관광유람선 타기, 요트타기, 제트 스키, 스킨스쿠버 등 고가에서 다소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의 참여를 위한 시설 등 체험환경개선과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주변항구나 어시장이 있는 경우 이를 연계한 상품개발, 해변축제나 이벤트 기획³⁾, 인근 전시관, 박물관 관람, 주변의 해송 등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산책로와 공원조성⁴⁾, 해안도로를 따라 자전거전용도로 조성,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게임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관광객들이 해수욕 위주의 관광활동 이외에도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까이서 접하면서 즐길 수 있는 해양관광 체험거리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이 경우 앞서 논의된 바 있듯이 해변을 찾는 관광객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연령대별, 성별 등을 중심으로 체험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

4. 시장세분화 필요

동해안 100개의 해변은 거의가 유사한 방식으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는데, 관광트렌드와 관광객의 욕구 및 선호도변화에 따른 새로운 해변운영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해변의 개성과 특성을 살린 독특한 컨셉으로 해변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동해안의 해변은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자연환경이나 해변관광지의 자연환경 뿐 아니라 규모, 시설,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등에서 나름대로 부각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세분화를 통한 해변운영 및 특화운영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는 피서객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소비창출 및 유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즉, 이제 해변은 천편일률적 운

3) 현재 많은 해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슷한 유형의 축제가 아니라 독특한 주제와 콘텐츠를 가지고 기획되어야 할 것임.

4) 이미 경포 등 주요해변에서는 이러한 환경이 구축되어 있으나 각 해변별 주요 자연관광자원과 독특한 컨셉을 활용한 해양체험관광 프로그램 및 시설개발이 더욱 활발히 추진되어야 할 것임.

영에서 벗어나 기존의 주요방문객 등 피서객의 계층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근 가족단위 피서객들이 많이 찾고 있지만 모(某) 해변의 경우 10-20대 청소년이나 젊은층들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 가족단위 피서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아 피서활동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등 불만을 낳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동해안의 해변은 특화가 필요하며, 세분화된 목표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해변운영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100개에 달하는 모든 해변을 세분화, 차별화 하기는 어렵겠지만 지역별 혹은 각 해변이 갖고 있는 주요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를 토대로 상품개발·홍보 등 마케팅과 운영관리 전략의 변화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가족단위라든가 젊은층, 연인, 여성중심, 노년이나 장년층, 기업연수중심 등 회원제 운영해변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해양관광 관련 수입 확보의 필요성

동해안 해변은 무료화되어 있는 입장료 뿐 만이 아니라 주차료, 부대시설 이용료, 각종 대여료 등 피서객들로부터 징수되는 요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넓게는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궁극적으로 해양관광지 운영을 통한 수익창출은 관광주체들에게 보다 수준높은 관광활동을 가능하게 하는데 재투자할 수 재원의 확보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관광산업이 지역의 기간 및 전략산업인 상황에서 여름 성수기 집중되는 관광객들의 소비지출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며, 특히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인 해변운영을 통한 수익창출은 지자체의 주요 수입원이자 관광지 운영관리의 재원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여러 가지 징수요금 중 특히 무료화되어 있는 해변의 입장료 및 주차료 등은 징수의 장애요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조사과정을 통해 요금징수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존의 무료화 의미와 타당성에 대한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해변 이용에 따른 적절하고 타당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관광지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근간이 될 수 있고 여름 성수기에 한해 징수한다면 관광주체들로부터도 큰 반발을 유발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관광객들은 관광소비행위에 있어 기본적으로 지불해야 할 합리적이고 타당한 관광비용 지출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적다. 또한 입장료나 주차료 등의 징수를 통해 과도한 여름철 관광객 집중현상으로 인한 수용력초과 등 과밀현상이 어느 정도 조절되어 자연스럽게 해변의 혼잡도가 감소될 수 있고, 이는 해변환경훼손의 감소, 해양관광활동의 수준 및 만족도 제고, 시설 및 관리에 대한 투자확대 등 보다 향상된 고품질의 해변환경조성이 가능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여 보다 나은 환경에서 관광활동을 즐길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관광지 이미지와 선호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제력과 소비능력이 높은 관광객 층의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와 같이 입장료 등을 무료로 함으로써 관광활동의 주체인 관광객들에게는 일시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피서객 과밀화로 인한 환경오염 및 쓰레기 처리 비용 증가, 각종 사건사고 등 사회문제 증가, 관광활동의 만족도 저하, 지방제정 기여도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져 오히려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 가지 예로 최근 국립공원 입장료가 무료화 되면서 국립공원 내의 취사 및 야영행위, 자연환경 훼손행위와 같은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등 갖가지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관광주체들의 심한 반감을 사지 않는 정도의 적절하고 타당성 있는 관련 요금징수는 검토되어야 하며, 요금징수의 장애요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통해 개선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국립공원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관광지의 경우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입장료나 주차료, 시설 이용료 등은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지자체의 관광지 관리 및 운영의 재원으로서 중요한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해변 등 해양관광지에서의 요금징수는 다양한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하며, 제도적 측면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무료화가 관광객에 대한 배려라는 관점과 현재의 무료화를 통해 지자체가 거두고 있는 성과나 기대하고 있는 편익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요금징수에 대해 보다 합리적, 거시적, 효율적인 관점에서의 제도개선과 실행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6. 동해안 해변운영의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간 상생전략 필요

현대관광은 독특성, 신기성, 차별성 등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그동안 동해안의 각 지자체는 관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을 놓고 상호 지원하고 도움을 주기 보다는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 많았다. 해변을 운영하고 있는 도내 6개 시·군 지자체가 무한 경쟁도 중요하지만 상생을 위한 협력관계구축이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지금까지는 여름철 성수기 해변운영과 관련하여 동해안 지자체간의 협력이 매우 미흡했으며, 경쟁이 과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서로가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해변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동일한 시설개발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던가 하는 것에서 벗어나 차별화되고 지역마다 부각시킬 수 있는 독특한 개성을 바탕으로 해변을 운영해 가야하며, 이를 위해 상시적으로 협의와 조율을 할 수 있도록 '관광거버넌스'와 같은 지자체간 협력체제구축이 필

요하다.

V. 결 론

사회변화의 가속화와 현대인들의 레저라이프스타일 다양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의 트렌드와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역사문화관광, 스포츠관광, 생태관광, 모험관광, 녹색관광 등의 관광형태가 급증하면서 관광현상은 갈수록 체험 등 참여위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해양관광자원을 배경으로 하는 해양관광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해양관광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강원 동해안 지역의 특성상 해양관광은 향후 상당한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강원 동해안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해변과 뛰어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정의 이미지와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어 해양관광산업의 미래는 밝다고 하겠다.

더욱이 근래와 와서 해양관광은 그 규모나 형태 등에서 갈수록 진보해 가고 있으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바다를 활용한 관광자원개발과 상품화 전략은 국내는 물론, 특히 강원 동해안지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자 추진과제이며, 이는 해양관광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를 견인하고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강원 동해안 지역의 우수한 해변 등 해양관광자원의 활용과 관리, 개발 등은 지자체에서 가장 집중적인 육성분야이자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인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21세기의 관광산업은 다양성과 활동지향성,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원하는 관광소비자들의 요구가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해양관광지로서 해변은 더 이상 단순히 바닷물을 이용해 즐기고 노는 장소가 아니며, 이를 대변하듯 근래의 해양관광의 유형도 더욱 다양화·세분화·전문화 되어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관련연구를 보면 대체로 해양에서의 활동으로 해수욕이 가장 높았고, 바다낚시 및 바다경관감상, 해변에서의 휴식 등의 유형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향후 참여를 원하는 해양활동으로는 '모터보트/수상스키 타기, 스킨스쿠버/스노크링, 바다낚시, 관광유람선 타기, 요트타기, 윈드서핑' 등 보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이는 결국 해양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활동 및 참여 프로그램이 직접 참여위주로 변화되는 등 활동성이 강한 측면의 해양관광의 비중이 높아짐을 의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요구되어진다.

대중관광의 시대에서는 관광객의 양적인 기준에 따라 관광사업 및 마케팅전략이 실행되었지만 향후 관광의 패러다임이자 트렌드는 질적관광이다. 즉,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내·외적 관광인프라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동해안 해변은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관광객 유인정책으로 양적인 증가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관광객이 실질적으로 고품질의 해양관광활동을 즐기고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려는 해양관광의 질적발전의 메커니즘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해양관광지 환경훼손 최소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개발, 숙박시설 등 충분한 관광편의시설 개발, 계절적 편중성 극복, 과밀화의 합리적 대안 마련, 관광객들의 자발적·적극적 소비환경구축, 해양관광자원의 효율적·합리적 관리운영 차원의 재원마련을 위한 제도정비 등을 통해 지역사회가 해변과 같은 해양관광자원을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준비와 노력이 중요하다.

현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강원 동해안 지역은 해양관광자원이 가장 핵심적인 관광자원으로서 그 역할과 가치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특히 해변은 국민대중의 관광목적지이자 해양관광활동의 주무대로서 간주되어 왔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을 위해 해변과 같은 관광자원이 지역의 생명줄이자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발전적 변화와 혁신적 운영모색을 통해 수준 높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당국 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의 역량과 노력이 결집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강원도민일보, 2009. 8. 26
 강원도 환동해출장소(2009). 내부자료.
 강원해양수산포럼(2007). 해수욕장 차별화 및 어촌관광 활성화 방안.
 권혁재(1974). 지형학원론. 법문사.
 신동주·신혜숙(2005). 해양관광개발론. 대왕사.
 이상춘·여호근·최나리(2004). 해양관광의 이해. 백산출판사.
 이재곤(2005). 해양관광자원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학 연구, 9(1).
 정석중·이미혜(2004). 해양관광론. 대왕사.
 홍장원(2002). 해양관광활동 및 해수욕장의 마케팅전략에 관한 연구. 월간 해양수산, 통권 215호.

해양수산부(2000). 해양관광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

해양수산부(2001). 해양관광 활성화방안.

해양수산부(2006). 해양수산백서(2004-2005).

Marks, Orama(1999). Marine Touris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http://www.yonhapnews.co.kr/>, 2009. 8. 23 연합뉴스.

Development Plan of Beach Management: Cases of East Coast of Gangwon Province

Abstract

The east coast area of Gangwon province in Korea is famous for natural beauty, many perfect sights and various kinds of tourist attractions. Especially beaches are one of the most attractive and clean tourist attractions in Gangwon province, when compared to the west and south coast of Korea, the natural environment is more prominent. But there are many problems concerning the east coast beaches of Gangwon province, such as environmental disruption, collecting fees for offering services, crowdedness, lack of main convenient facilities, decrease of consumption, unseasonably cool temperatures etc. This study examined several problems as to the beach management of Gangwon province that has been suggested over several years. Finally, the author suggested several improvements to solve the problems as mentioned above.

key words : beach, beach management, gangwon east coast